

# 전주지역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 쌀·축산물 상승세 지속... 배추·무 안정 수산물은 유통채널별 가격 차 커져

전주지역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품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며 소비자들의 잠바구니 부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복지회가 조사한 생활필수 농축수산물 가격 자료에 따르면 쌀과 축산물은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한 반면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는 안정세를 보였다. 수산물은 판매처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나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 구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대표 주식인 쌀 가격은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 일반미 10kg 기준 평균 가격은 4만816원으로 한 달 전 4만6500원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지난

해 같은 기간 3만2791원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수준이다. 판매처별로는 이마트 전주점의 '이천쌀'이 4만998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이브존의 '순천만쌀'도 할인 판매에도 불구하고 4만9800원을 기록했다. 반면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에서는 각각 3만3000원, 3만6000원 수준에 판매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했다.

배추와 무는 지난해 급등세와 비교해 안정된 흐름을 나타냈다. 배추 1포기 평균 가격은 3418원으로 한 달 전 4481원, 지난해 같은 기간 5197원보다 낮았다. 홉플러스 전주효자점은 49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 롯데마트 전주점은 할인 행사 영향으

로 2490원에 판매됐다.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에서는 3000원 수준에 거래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했다.

무 가격 역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무 1개 평균 가격은 224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99원보다 크게 낮아졌다. 롯데백화점은 398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굿모닝마트는 120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다. 농협하나로클럽과 롯데슈퍼 효자점은 1800~1900원대 가격을 형성했다. 업계에서는 봄철 출하량 증가와 작황 회복이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삼겹살(600g 기준) 평균 가격은 1만8063원으로 한 달 전 1만6956원보다 상승했다. 롯데슈퍼 효자점은 2만388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굿모닝마트와 롯데백화점도 2만원 안팎의 가격대를 형성했다. 반면 농협하나로클럽은 1만6080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로 저렴했다. 전동시장 역시 가격 상승 흐름은 비슷했다.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삼겹살 가격은 각각 1만8000원, 1만6500원 수준을 기록했다.

수산물 가격은 유통업체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생고등어(30cm 기준) 평균 가격은 4701원으로 롯데백화점은 95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남부시장과 모래내시장은 5000원 수준이었다. 농협하나로클럽은 할인 판매 영향으로 3192원에 판매됐다.

과일류에서는 사과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사과(300g 기준) 평균 가격은 371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 다농마트는 69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은 5000원 수준에 판매됐다. 이마트 전주점과 롯데마트 전주점은 2000원대 가격을 유지했지만 중량 차이에 따라 가격 편차가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 AI 접목 가상융합산업 지원 본격화

### 전북테크노파크·익산시, XR·홀로그램 기업 대상 기술 고도화 추진

전북테크노파크와 익산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익산시는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AI 기술 융합형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와 디지털 전환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XR(확장현실), 홀로그램 등 가상융합산업 분야에서도 AI 기반 기술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산업 변화에 대응해 지역 기업들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홀로그램, XR 등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접목한 제품 및 서비스 기능 개선과 성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기술개발을 넘어 실제 상용화 가능성과 산업 확산 효과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사업 규모는 총 1억1000만원으로, 전북테크노파크는 4개 기업 이상을 선정해 과제당 최대 4000만원 이내의 개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약 6개월 동안 AI 기술 융합 개발과 사업화 과정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상융합산업 관련 중소기업으로, 기존 제품·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이다. 특히 AI 기술을 접목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진입 기회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그동안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 유치와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AI 산업과 가상융합산업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해 기술 융합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9일 까지 진행되며, 관련 서류는 홈페이지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 수출·도약·소부장 맞춤형 기술혁신 R&D 156억원 지원

### 중기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대규모 R&D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지난 15일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연구

개발(R&D) 지원사업이다.

중기부는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총 125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고, 약 156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별 특성에 맞춰 수출, 성장(도약),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수출지향형' 사업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하반기에는 60개 기업이 선정

되며, 기업당 최대 2년간 10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 분야 제한을 폐지해 보다 다양한 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124개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평가 시 우대가 적용된다.

새롭게 도입된 '점프업 연계형' 사업은 중기부의 도약(Jump-Up) 프로그램과 연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하반기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년간 10억 원을 지원하며, 스케일업 중심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는 국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 자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소부장 특화로드맵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하반기 60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2년간 5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한편 이번 사업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범부처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5일 전주 베스트웨스트플러스호텔에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협동조합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중소기업 임직원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생성형 AI 실무교육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승중)는 지난 15일 전주 베스트웨스트플러스호텔에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협동조합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중소기업 임직원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실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업무 혁신 역량을 높여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이해영 강사가 초창기 구글 제미나이 활용 방법, NotebookLM

기반 사내 문서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법키AI를 활용한 텍스트 정보 시각화 등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제작과 자료 요약, 업무 자동화 방법 등을 직접 체험하며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사내 문서 검색 및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실습은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큰 관심을 보였다.

교육 현장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 제도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통해 노란우산의 가입 혜택과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며 경영 안정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상근 기자

# 전북농협, 벼 육묘·신기술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전북농협이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 구축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육묘 및 신기술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14일 벼 육묘·신기술 전북협의회(협의회장 김기수 조합장)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조합장 20여 명이 참석해 주요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결산 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신규 회원가입 승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신규 회원으로는 순창농협, 낭산농협, 망성농협,

삼기농협, 성당농협, 전주농협 등 6개 조합이 포함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공동육묘장 운영 활성화 방안과 드문모심기 보급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영농 지원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벼 육묘 단계의 품질 향상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노동력 절감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 실물경제' 수출·고용 개선... 제조업·내수 둔화

전북지역 실물경제가 수출과 고용에서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제조업 생산과 내수 부문에서는 부진이 이어지며 부문별 온도차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등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전기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했다. 다만 계절조정지수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0.5% 상승해 단기적으로는 소폭 회복 흐름을 보였다.

내수 지표에서는 대형소매점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2.0% 감소하며 소비 위축이 이어졌다. 반면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30.7% 증가해 소비 항목별로

상기한 흐름을 나타냈다.

수출은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3월 전북 수출액은 6억9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2% 증가하며 외부 수요 개선이 이어졌다.

고용지표도 개선됐다. 3월 취업자 수는 98만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6천 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3.7%로 1.0%p 상승했고, 실업률은 2.2%로 0.5%p 하락하며 고용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물가 부문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해 물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